

예수님 시대 팔레스티나의 정치적 상황

로마는 기원전 63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두매아 출신의 안티파테르를 실권자로 세웠다. 기원전 43년에 그가 암살당하자 그의 아들 헤로데가 로마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의 임금'이라는 칭호를 받고 33년간 팔레스티나를 다스렸다(기원전 37-4년). 헤로데는 자신의 왕위를 안정시키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요새와 식민 시설 건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증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무자비하게 징수 했다. 그는 유다인들에게 그들의 종교와 풍속에 따라 살도록 허용하는 한편 그리스 문화도 받아들였다. 헤로데의 전제적인 통치는 민중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 주었을 뿐 아니라 체제에 대한 반발까지도 불러 일으켰음에 틀림 없다. 그는 그의 통치 초기와 말기에 격렬한 저항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다.

헤로데 대왕이 죽은 후, 즉 예수님이 탄생한 지 몇 해 후에 그의 왕국은 세 아들에게 분할되었다. 헤로데 아르켈라오스(기원전 4년-기원후 6년)는 유다와 사마리아를, 헤로데 안티파스(기원전 4년-기원후 39년)는 갈릴래아와 베로이아를, 헤로데 필리포스(기원전 4년-기원후 34년)는 대부분의 북동부 지역을 다스렸다.

아르켈라오스는 잔혹한 통치자로, 제위 후 오래지 않아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 폐위당한다. 그때부터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은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의 지배를 받는 속주가 된다. 기원후 34년에는 헤로데 필리포스가 죽고, 39년에 헤로데 안티파스가 파직을 당하여 그들의 영지도 각각 로마 총독 관할로 귀속된다. 기원후 41-44년 사이에 팔레스티나는 헤로데 아그리파스 1세(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투옥 사건으로 알려진 인물; 사도 12장 참조)의 통치를 받다가 그가 병사한 다음 다시 로마 총독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로마인들은 팔레스티나를 직접 통치(기원후 6년-41년, 44년-66년)하게 되자 식민지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전국적인 호구 조사를 실시하고 자산 목록을 작성한다. 이렇게 해서 과세 부담에 짓눌리게 되자 유다인들을 신앙적인 문제를 이유로 내세워 호구 조사령에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다.

결국 세금 부담에 대한 유다인들의 불만은 기원후 6년에 갈릴래아 출신 유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결성된 열혈 당원들이 로마에 대항해 일으킨 폭동으로 표면화되기에 이른다. (사도 5,37참조) 열혈당원들은 하느님의 뜻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하느님 한 분 이외에는 누구도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수 없다는 강한 결의로 로마에 항거했다. 로마는 즉시 열혈당원들의 이 첫 봉기를 진압한 다음, 적어도 유다인들을 2만 명 이상 십자가 형에 처했다. 그러나 종교적열성을 견지하고 있던 그들은 66년에는 점차 높아진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인수했으나(제1차 독립전쟁, 66-70년), 로마는 4년 후인 70년에 대군을 파병해 예루살렘을 함락 시키고 도시를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은 마싸다 요새에서 항전하며 73년까지 버티다가 전멸되고 말았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 팔레스티나는 로마 황제 특사의 지배를 받았다. 132년에는 시몬 바르코시바 라는 인물이 주도했던 또 한차례의 무력 봉기가 유다를 휩쓸었으나(제2차 독립전쟁, 132-135년) 로마의 즉각적인 반격으로 135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전멸되었고 유다인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이처럼 기원후 1세기경의 팔레스티나는 유다 민족에게 극심한 혼란의 시기였으며, 그와 같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발디딜 땅을 찾아야만 했다.